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 이승엽, 무안타 1득점..요미우리, 일본시리즈 2차전 승리

송고시간 | 2008-11-02 21:44











이충원 기자 기자페이지



이승엽(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방망이는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도 침묵했지만 요미 우리는 알렉스 라미레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1패 후 1승을 거뒀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 2차전에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지만 네 타 석에서 볼넷 2개를 얻어냈을 뿐 2타수 무안타, 1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나갔다가 쓰루오카 가즈노리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귀중한 선취점 을 올렸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삼진(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돌아섰다. 5회 세번째 타석에선 2사 2,3루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가 며 만루 찬스를 만들었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2-2로 맞선 7회 1사 2루 찬스에선 세이부 세번째 투수 호시노 도모키의 빠른 직구에 삼진으로 돌아섰다. 일본시리즈 2경기 7타석에서 볼넷 3개,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라미레스의 9회말 끝내기 홈런으로 힘겹게 이겼다.

앞선 네타석 모두 범타에 그친 라미레스는 2-2로 맞선 9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세이부 다섯번째 투수 오카모토 신야의 2구 (볼카운트 0-1)째 바깥쪽 슬라이더를 노려쳐 가운데 펜스를 넘겨 버리며 경기를 끝냈다.

요미우리는 2회 볼넷을 골라나간 이승엽을 쓰루오카 가즈노리 의 희생플라이로 불러들여 선취점을 뽑았다.

요미우리 선발 투수 다카하시 히사노리는 3회까지 세이부 타선을 무안타로 꽁꽁 묶으며 기세좋게 앞서갔다. 하지만 4 회초 세이부 선두타자 가타오카 아스유키에게 2루타를 얻어맞은 데 이어 1사 3루에서 1차전 결승 홈런의 주인공 나카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지마 히로유키에게 다시 2점 홈런을 얻어맞아 1-2로 끌려가는 처지가 됐다.

요미우리는 4회말 2사 1, 2루와 5회말 2사 만루 찬스를 놓치며 1차전 악몽을 되풀이하는 듯 했지만 6회 선두타자 우전 안타를 치고나간 사카모토 하야토를 대타 가메이 요시유키의 2루 적시타로 불러들여 2-2 균형을 맞추며 9회 역전 승리 를 준비했다.

cany9900@yna.co.kr



<프로야구> MVP.신인왕 영광의 주인공은(종합)

일본야구 야쿠르트, 왼손 투수 이혜천에 눈독

이승엽, 위협구에 타격 밸런스 '흔들'

이승엽 "위협구 이겨낼 것..홈런 노리겠다"

이승엽 "몸쪽 공은 버리고 바깥쪽만 노린다"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2 21:44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뭐하고 놀까? ## 👺 →

⊕ 67 안 맞아"(종합)

대병원 자원봉사

동재개 예열?

힐 예정"

3

**⊕** 61

4

 ⊕ 56 5

⊕ 40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8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두<del>문불출</del>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sns **f** 

¥

O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유튜브채널

비주얼뉴스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